

“한땀한땀 정성 만다라 돼요”

산문박의 禪

한국자수연구가 남상민 씨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정성없이 쉽게 되는 일은 없다. 특히 '자수'라는 것은 한땀한땀씩 바늘과 실이 수백 수천번을 움직여 엮어내는 대역사다. 작은 바늘과 비단실이라는 간단한 도구만으로 가지가지 삼라만상을 정교하게 묘사해 내는 자수야말로 지극한 정성과 심미안으로 예술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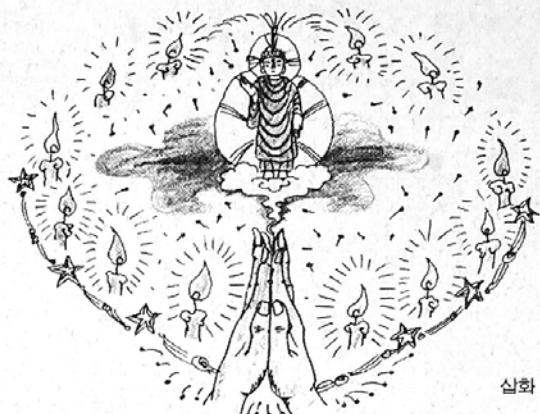
명상으로 작업시작 40년

자수는 바로 정성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생활예술이다. 우리 조상들은 금사로 수놓은 옷을 입고, 물건을 싸는 작은 보자기, 주머니에까지 수를 놓아 사용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자수는 오늘날까지도 섬세한 여인의 손끝을 거쳐 그 생명을 이어왔다.

오늘날 그러한 자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생활용품에서 승화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우

리다가도 수를 앞에 앉지만 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오로지 바늘과 실의 나아갈 곳만을 생각하는 무의의 경지로 빠져든다. 그렇게 한땀한땀, 바늘 그림대로 바늘과 실이 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수틀에서는 색실의 조화로 또 하나의 오묘한 생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하나의 색실이 각각으로 또는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빛깔의 조화를 연출해 내고, 하나하나의 문양이 어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수의 묘미다. 자수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작은 세계다.

피부색과 눈빛, 생활양식과 언어까지도 다른 각양각색의 인간들, 성격과 사고방식이 각각 다른 개성들이 모여 살아 가는 이 세상도 자수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개성은 빛나고 우리 사회는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남상민씨는 지난 79년 모두 91쪽의



삽화·이기선

마음의 '비린내'를 제거하자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다. 깨침은 일체의 미망에서 환하고 밝게 되는 것이다. 미망이 가득차 있으면 혼미가 난무한다. 미망처럼 무섭고 가공할만한 것이 없다. 우리들은 주변에는 미망한 것이 뒤엉켜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미망에 부딪치면 파괴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미망은 암초와 같고 빙하와 같은 것이다. 항해하는 선장은 빙하를 만나거나 암초를 모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난파되거나 침몰할까 두려워서다. 비에는 빙하와 암초가 없을 때 순항이 보장받을 수 있다. 항해하는 평온한 바다를 회유한다. 이것은 항해가 순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적 자기만을 위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물적 생활이 만족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겸양이나 양보가 없다. 겁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내가 이겨야 하고, 인제든지 내가 독차지해야 한다고 억지와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마음에

다. 그러나 불교를 달라지게 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로서 표방된 진리이다. 깨침은 변이, 변질,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깨침은 항상 밝고 환하게 우주의 빛으로 변만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달라져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 사람은 옛날과 같이 똑같은 비린내를 갖고 있으려 하면서 깨침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소시키려는 미망의 소행이다.

한국 불교인은 날마다 사찰에서 기도와 참회를 한다. 발원적 수행도 갖추고 기도도 하지만 혹자에게는 기복적 형태로서 기도와 업장소멸을 염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불교는 개인적 신앙에는 한결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면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사실 인간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자기 앞에는 이웃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 깊은 관심을 쏟아내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대 사회적 상

목적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5

깨침

깨침의 종교인 불교에도 미망의 암초나 빙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미망을 품고 있다. 이 미망이 바로 생활적인 마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재산이라고

욕망·부정 탈피 이웃에 관심을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서 육식하는 마음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망이 가득차 있으면 그것이 육식의 비린행위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상해하고, 난폭과 무례로서 상대를 괴롭힌다. 인간은 탐욕한 비행, 흥족한 야만성을 내함하여 그의 식을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부하하게 한다. 이것은 '비린내' 나는 행위다. 음식물에서 비린내가 나면 쉬이 제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비린내는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의 '비린내'를 떨진시켜야 한다. 욕망의 역제, 미망, 부정, 허무주의, 우치 등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생생하고, 부정할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할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은 그렇지 않다.”

관관계가 결여된 신앙은 개인소득을 증장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깨침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깨침은 중생의 삶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임을 자각하여 나가는 것이다. 미망, 무지, 탐애가 밤에 활동하는 암흑의 무명이라고 하면 깨침은 밝음의 한쪽편에서 일체중생을 두루 비추는 한낮의 광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 불교는 깨침이 원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신앙으로 전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불교인이 되면 깨침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불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불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한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수틀속 색실조화에서 '색즉시공' 오묘한 진리 배워 부처님 일대기 91쪽 연작 '팔상성도' 4년 걸쳐 완성

리결에 자리해 있다. 다소곳이 앉아 수틀은 얼굴로 수를 놓던 새색시의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남상민씨(법명 해인공, 60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틀앞에 앉는다. 바늘을 잡기 전, 잠시 눈을 감는 것은 40년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나'를 잊고 자수의 경지에 몰입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눈을 감고 마음의 숨을 고르노라면 모든 잡상이 놓여지고 오로지 실과 바늘만이 그녀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평정시킨 후 그녀는 바늘을 잡는다.

수를 놓는 일은 반복작업이라 무척 단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마음을 모아 해야 하는 일이다.

수를 놓다보면 어느덧 무위의 바늘 끝에서 실의 움직임만을 느끼게 된다. 수 놓는 일에 몰입하다보면 무명의 경지에 다다름을 느낀다. 수틀이라는 것이 소우주처럼 느껴지며 수틀이 지구만 확장되어 대우주 삼매의 경지를 잠시나마 감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상념에 시달

연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성도(八相成道)'를 완성시켰다.

“어느날 밤 꿈 속에서 부처님의 밝은 광채에 놀라 잠을 깬 적이 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일생을 수틀에 담아보자는 생각이 강렬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남편과 함께 홍원사 해연스님을 만나 제 뜻을 말씀드리고 팔상도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남상민씨는 남편과 함께 불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한 달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일생을 그리기에 앞서 송광사, 해인사 등을 다니며 마음뒤편에도 열중했다. 그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도솔래의상에서부터 쌍림열반상에 이르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4년 여에 걸쳐 실과 바늘로 묘사해 낸 것이다.

하루 6~7시간씩 바늘 짚는 작업을 20~30일을 거듭해야만 한쪽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여. 손끝으로 잡기도 힘든 3센티미터 정도의 바늘

하나로 인고의 시간을 넘고 또 넘었다. 어떤 때는 진력이 나고 피로가 겹쳐 몇 번이고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잠을 찾아 부처님전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새침이 솟구쳐 오르곤 했다.

그녀 스스로도 팔상성도의 작업은 깊은 신심이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녀는 이때 눈으로 보며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끝에 극기와 인내로 얻어내는 수행의 과정과 닮았노라고.

지난 5일부터 자수기획전

미술의 해이자 광복 50주년인 올해를 마감하며 남상민씨는 지난 5일부터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 한국자수 기획전'을 경북궁 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한국자수문화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 남상민씨는 관세음보살도와 지장보살도 2점의 불교자수를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한국자수문화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

녀는 이번 전시회에서 1백23쪽의 다양한 자수기법을 소개해 한국자수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수는 빛의 방향이나 밝기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채도의 변화를 주기위해 12색의 풍사를 색도에 맞춰 다시 합사하고 마치 그림들처럼 수백가지의 다양한 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화(古畵)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명주, 공단, 삼베, 일 반마직 등 바탕천은 고화처럼 했습니다. 특히 불교자수는 고려시대 지극 정성으로 다라니와 부처님의 방식을 수놓았던 청신녀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청신녀들은 굳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불법에 경배하면서 손끝으로 정성으로 우리민족문화의 얼을 이어왔던 겁니다. 제 불교자수도 바로 그 연장선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라 말하는 남상민씨. “오늘도 그녀는 수틀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늘과 실에 담아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장엄하게 수놓아 가고 있다.

이은자 기자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큰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비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無礙)를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잠정이 걷히고 환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범공양문 신국판 / 각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세트 / 각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두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각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은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각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로 풀이해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권력을 복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아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각 5,000원

출판 유포

전화: (02) 587-6612 · 3 팩스: (02) 586-9078